

한일 古代史 X파일 전모 파헤쳐



‘왜사(倭史)’

글/그림 김산호
여시이문 / 2만5천원

日 황가 탄생·왕인·광개토대왕과의 관계 등
그림 곁들인 추리소설 읽는 듯한 긴박감 쫓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얽힌 역사의 X파일이 공개된다.’
한국최초의 SF만화 ‘라이파이’의 작가이자 수년간 한국 고대사 연구에 전력을 온 김산호(사진) 화백이 동아시아 역사의 비밀을 파헤친 회화극본 <왜사(倭史)>(여시이문)를 펴냈다. 이 책은 그동안 왜곡되어온 ‘왜(倭)’의 실제와 역사를 낱알이 밝혀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오랜 은원(恩源)과 대립으로 서로간의 진실과 역사를 밝혀낼 기회를 갖지 못했다. 더욱이 왜구의 침탈과 임진왜란, 일제 강점기로 얽힌 양국의 관계는 선린과 우호보다는 증오와 복수의 정서만을 키워온 게 사실이다.
작가 김산호씨는 우연한 기회에 중국인의 ‘중화주의’와 유태인의 ‘시오니즘’을 연구하던 중 동북아시아의 두 지역인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약연으로 맺어졌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역사의 X파일이 존재할 것이라 믿을때문이다. 그래서 김 화백은 흔히 ‘왜구’라고 불리는 일본 즉 ‘왜’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동북아시아 전 지역에 출몰했던 왜의 전모와 실상을 밝혀내지 않고는 이 지역의 과거사를 정확히 수면위로 떠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 고대사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특히 한국 고대사는 일제의 황국사관에 철저치 않으면서 오염되어 있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역사는 말쑥한 것이 없는 속된 강경이라는 게 김 화백의 주장이다. 이

렇게 왜곡된 한일고대사는 두 나라 모두에게 불행과 비극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이다.
김 화백이 한일고대사를 연구하며 결론 지은 한국과 일본은 같은 민족, 같은 형제라는 것이다. 현재의 일본은 한반도에서 전란을 피해 이주한 이민세대에 의해 건설된 ‘제 2의 한국’이라고 보는 셈이다. 그런데 한 가지 기이한 사건이 최근에 발생했다. 유전공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간 게놈 지도가 완벽하게 밝혀진 것이다. 이 결과 한국과 일본은 거의 100% 가까운 DNA의 일치율을 보였다. 이에 김 화백의 ‘왜사’에 대한 주장이 어느정도 설득력을 가지게 됐다.
이 책은 먼저 발달민족(베달민족)의 시원부터 출발한다. 이어 북부여의 해모수전설, 고구려 시조, 삼국시조 온조왕, 일본의 탄생, 천황국의 탄생 등이 화려한 색채의 그림과 드라마틱한 스토리 전개로 흥미를 불러 일으킨다.
이 중 비류(佛流)와 은조(隱宗)에 얽힌 비밀과 여귀 소녀의 괴담만장한 운명 등은 정사(正史)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충격적인 사실들이다. 또 일본 황가의 탄생과 그에 얽힌 한국 고대사의 비의(秘義), 백제의 왕인 박사와 광개토왕에 얽힌 한일사의 X파일은 한편의 추리소설을 읽는 듯한 긴박감을 준다.
이 책은 2백페이지의 분량이지만 김 화백 특유의 리얼리티 넘치는 화필과 극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읽는 재미를 톡톡하게 해준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문명인들에게 던지는 호주 원주민의 메시지

‘무탄트 메시지’

말모 모건 지음 / 류시화 옮김
창작과 비평사 / 2만원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부족 중 하나인 ‘오스틀로이드’라고 불리는 이들(그들은 스스로를 ‘참사람 부족’이라 일컫는다)은 문명인들을 가리켜 ‘무탄트’라고 부른다. 이는 돌연변이라는 뜻이다. 기본 구조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 본래의 모습을 상실한 존재를 말한다. 원주민들은 자연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들인 동물, 나무, 풀, 구불거리는 새끼, 심지어 바위와 공기조차도 우리의 한 형제이며 누이라고 믿고 있었다.
신이 최초로 창조한 사람들이라 불리는 호주 원주민 참사람 부족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면서, 모든 생명체가 형제이며 자매라고

믿는 이들이다. 그래서 문명의 돌개바람과 함께 물러와 어머니 대지를 파헤치고, 강을 더럽히고, 나무를 쓰러뜨리는 문명인들을 보면서 원주민들은 그들을 ‘돌연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백인들과 타협하지 않은 마지막 원주민 집단으로 알려진 참사람 부족은 걸어서 호주 대륙을 횡단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자연 치료법을 전공한 백인 여의사 말모 모건은 이 참사람 부족이 엄선한 무탄트 메신저로 선택되어, 이들과 함께 날 달에 걸친 사막 도보 횡단여행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 책은 그 여행의 기록이며, 참사람 부족이 마치 마크로 세상의 문명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120일간의 횡에서 여정에서 말로 모건은 많은 깨달음을 얻는다. 저들이야말로 가장 현명하게 사는 참사람이라는 것. 자연에 도로 내고, 발 딛고, 수도관 깔고, 전기 가설하는 우리야말로 이 땅의 돌연변이라는 자각을 내면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면 땅 냄새 맡고 달라붙는 파리 떼를 몸부림으로 쫓아낼 수 없었을 때, 그냥 내맡기자 찌든 땀을 다 흘려먹는 파리들은 멀리 사라지고 말았다. 자연의 이치는 그런 것이었다. 백인이 애용하는 진리를 말로 모건은 터득한다.
그리고 했다. 자신의 소중한 경험을 친지들에게 알리려 자비로 책을 출판했다. 이 책은 1994년 <무탄트>, 2001년 <그 곳에서 나 혼자만 이상한 사람이었다>라는 제목으로 나왔던 책 내용을 보강해 재생지에 다시 옮긴 것이다.
김주일 기자

‘참사람 부족’과 넉달간 사막도보횡단 기록

‘티베트와 중국의 역사적 관계’
김한규 지음
혜안 / 2만원

“티베트는 독립된 역사공동체로 존속”

최근 한국에서도 불교계를 중심으로 티베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관련 서적의 출간 소식을 이따금 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역사학계에서는 지금까지 티베트 역사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엔 김한규 교수(서강대 사학과)가 2000년에 출간하였던 <티베트와 중국—그 역사적 실제에 대한 연구사적 이해>(소나무)에 이어 <티베트와 중국의 역사적 관계>라는 저작을 냈다.
두 책은 우선 제목이 매우 의미심장하다. 곧 티베트가 중국과 대등한 하나의 실체로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책에서 말하는 티베트와 중국은 현재의 티베트와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의 티베트와 중국을 가리킨다. 그러나 현재 티베트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인식이 과거의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책의 제목은 어쩌면 자극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지금의 중국 영토 안에 존재하였던 과거의 나라들은 모두 중국사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주장

국가들과 전쟁 혹은 사신 파견, 책봉조공(冊封朝貢), 호시(互市) 등의 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지만, 훗날 티베트의 핵심을 구성하는 부족은 지리적 격리로 인해 중국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
② 토번(吐蕃) 왕국과 당(唐) 왕조 시기 : 양국은 전쟁과 사절단의 교환을 지속하면서 매우 대등하고 독립적인 정치관계를 유지하였다.
③ 분열기의 티베트와 오대(五代)·송(宋) 왕조 시기 : 양국이 모두 분열 또는 국력의 위축으로 인해 전면적 관계를 갖기 어려웠다.
④ 사카파(薩迦派) 시기의 티베트와 몽골 원(元) 시기 : 티베트의 정치·종교를 일원적으로 지배한 티베트 불교의 사카파 수령이 쿠빌라이 등 원의 황제들과 법주(法主)와 시주(施主) 관계, 즉 단월(檀越) 혹은 공시(供施) 관계라는 독특한 형식의 관계를 맺고 원 제국의 달라이 라마가 협력하는 대가로 티베트에 대한 통치적 통치를 승인·지원 받았다.
⑤ 재분열 시기의 티베트와 명(明) 왕조 시기 : ③

중국과의 관계 가까운 시기부터 소급 기술

하고 있다. 오랫동안 전통시대 동아시아 세계질서에 관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저자는, 티베트와 중국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이해가 동아시아 세계질서를 연구하는 데 많은 단서를 제공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루지 못했다. 이번엔 저자가 이 주제를 다룬 것은 자신의 학문적 세계를 완성시키기 위한 큰 발걸음의 하나를 옮긴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양자의 역사적 관계를 역순으로 추적하고 있다. 즉 먼저 현재의 양자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중국 정권의 티베트 점령과 그에 따른 티베트 주권의 상실에 대해 기술한 다음, 그 역사적 관계를 몇 단계로 나누어 가까운 시기부터 소급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매우 흥미롭고 또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지만, 반면 손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이따금 눈에 띈다.
독자들을 위해 책의 내용을 빠른 시대부터 간략하게 정리해 두겠다.
① 티베트-중국 관계의 선사(先史) 시대: 당시 티베트는 수많은 부족이나 소국 혹은 소국연맹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소국 등이 개별적으로 중국의

의 형태가 재현되어 명의 황제는 티베트의 각 지역에 할거한 각 교파의 영수들과 다원적 단월 관계를 맺는 동시에 책봉조공 관계도 수립했다. 티베트의 정치적 독립성이 상실되지는 않았다.
⑥ 겐록파(格魯派) 시기의 티베트와 청(淸) 왕조 시기 : 티베트의 정치·종교를 일원적으로 장악한 겐록파의 수장인 달라이 라마가 청 황제와 단월 관계를 맺었다. 단, 청은 티베트에 네 차례 군대를 진입시켰고 또 두 차례 장정(章摺)을 만들고 주장대신(駐藏大臣)을 파견하여 제도적으로 내정에 개입하였다. 양자의 관계는 매우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측면이 있었다.
⑦ 13대 달라이 라마와 중화민국 시기 (1911~1951년): 티베트가 중국의 혼란을 틈타 중국과 모든 전통적인 관계를 단절하고 사실상 독립된 국가체제와 지위를 향유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저자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티베트는 중국과는 다른 생활공간과 언어·문자·종교·혈통·역사·의식 및 공동체 의식을 가진 별개의 독립된 역사공동체로서 존속하였다.”
■정병준 / 동국대 사학과 부교수

<티베트와 중국의 역사적 관계>는 티베트가 중국의 정치적 속국이 아니라 대등한 역사와 생활방식을 비롯한 공동체 의식을 지닌 독립국가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생명의 돌, 희담석은 이렇게 다릅니다

“생명의 돌, 생체활성 메카니즘 -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동남아 오지에서 옛날부터 치료용으로 쓰이던 신비의 돌입니다. 지구 깊숙히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융합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의 일종으로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여타의 제품보다 뛰어납니다. 이런 희담석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체활성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한 것이 (주)자원넷의 희담석 제품입니다.

《희담석 체험사례》
“얼마, 제가 어느 대학에 갔지 기대하세요”
희담 방석과 인연을 맺은 지 벌써 2년이 되어간다. 1년 전 하고 1학년이었던 딸은 평소 책상에 앉자마자 12시 남짓을 침적해 했으며 졸기 일쑤였다. 또한 아침에는 늘 계우기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자작한 후석에 두면 ‘희담 방석’을 얹어 놓으면 딸의 의자에 앉아 놓았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졸지도 않고 집중을 잘 하는 듯 보였다. 허우는 중간고사를 준비하면서 딸이 새벽 3시 ~4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졸지도 않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지 않고 잘 일어나는 것이었다. 평소 자기 반 32점 중 27점 정도였던 딸이이 성적은 ‘희담 방석’을 사용한 직후 10등으로 쏙 올랐다. 과목중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일 힘들어 했었는데 영어 과목의 성적이 전체적으로 월등해 나아갔다. 나와 딸에는 물론 선생님과 친구들까지도 매우 놀라웠다. 그후 딸이이에는 아침 잠을 잘 때도 희담 방석을 베개로 사용할 정도가 되었으며, 공부에 대한 열정도 점점 높아졌다. 그리고 나서 처음 1학기말 고사 성적은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전체 과목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95점이 나왔던 것이다. ‘얼마, 새로 태어난 것 같아요. 공부하는데 이렇게 재미있을 줄 정말 믿었어요. 제가 어느 대학에 갔지 기대하세요’ 하며 흥분해 하는 딸 이마를 보니 그저 감시할 뿐이다.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희담 방석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이 글을 읽는다. 다시 한번 감시드린다. 김영희(24세/여, 수험생 어머니, 부천중동)

“얼마, 정말 공부가 재미예요.”
일 년 전 손바닥 크기의 희담석 지킴이를 선물받았다. 허리가 아플 때 하면 대보았더니 한두 시간 지나자 요통이 사라지는

게 보통 돌이 아닌가 보다 싶었다. 그후 희담석으로 만든 방석이 나왔다고 해기에 한 개 구입하여 고등학생 아들의 오자여 꿇아주었다. 어느 날 아들이 문득 ‘엄마, 정말 공부 재미예요.’ 하는게 아닌가! 이유는 물론이 희담방석 위에 앉아 있을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머무가 생긴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중이 잘 된다고 하였다. 그후로도 성적은 올라 갔으며 지금도 꾸준히 성적이 오르고 있는 중이다. 모두 희담방석 덕분이라 생각된다. 수험생이 있는 집에서는 꼭 한번 써 보실 것을 자신있게 권한다. 강해숙(43세/여, 수험생 어머니, 일산)

“건강이 회복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합니다.”
나는 백혈병과 무병종이며, 이틀에 한번씩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마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사 맞고 난 다음날 백혈병 환자들은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친구의 소개로 무탄트 희담석 보료를 구입한 후, 주사를 맞고 희담 보료 위에서 하룻밤을 잤더니 이상하게도 통증이 없었습니다. 의외였지만 다음날 다시 주사를 맞았고, 그리고 희담석 보료에서 또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보낸 중 희담석 보료를 한번 시험해 보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한 후 4개월 동안 백혈병에 대한 어떤 약도 먹지 않았으며 병원 치료도 중단한 채 오로지 희담석 보료에서만 잠을 잤습니다. (백혈병 환자는 약을 끊을 경우 대부분 1달 정도 되면 병원에 실려 간다고 합니다.)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였고 결과를 본 나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혈구의 수치/병원에 다니며 약을 먹었던 당시의 수치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희담석 보료에서 자면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건강이 회복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합니다. 강기주(51세/남, 대전시 서구 문산동)

“올 가을에 에너지가 생성되고 있는 것을 느끼며 가뭄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
늘 냉역한 나는 불사를 믿고 건강을 회복하고자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실패하고 했다. 특히 평소엔 잠을 꼭 잘 수가 없었기에 아침에 일어나려면 목신! 천근만근이 듯했다. 무언의 도관님의 소개로 희담석 보료를 사용하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잠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잠이 보약’이라고 했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숙면을 취한 기분인지 몸 만 가득히 에너지가 생성되고 있는 것을 느끼며 가뭄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 희담석 보료를 사용함 지 약 6개월이 되었다. 몸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지금 허우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보내고 있지만, 희담석 보료가 있기에 그 큰 불사를 대려없이 지내려고 있으니 참으로 감사하다. (스님, 경남)

마하몰 제품문의
(02)732-1520

제조원
(주)자원넷
JAWONET CO., LTD.